

# 국경없는의사회

MÉDECINS SANS FRONTIÈRES

## 국경없는의사회가 변화를 가져온 5가지 방식

한국 사무소 개소 5주년을 맞아



##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0614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7길 7  
조이타워 5층  
전화 02-3703-3500  
팩스 02-3703-3502

 www.msf.or.kr  
 facebook.com/msfkorea  
 @msfkorea  
 @msfkorea  
 youtube.com/msfkorea  
 @국경없는의사회  
 blog.naver.com/msfkr

**사무총장** 티에리 코펜스  
**보좌관** 하신혜  
**현장인력 채용팀** 줄리 페통  
김은선  
**재무/인사/사무팀** 김알렉시  
김정민  
박정인  
신은경  
**후원개발팀** 윤지현  
김지영  
김희로  
신한나  
문상원  
정유정  
**홍보팀** 윤주웅  
김미정  
심연우  
이주사랑  
정지향  
최여름  
**디자인** slowalk

## 목차

- 03 한국 사무소 개소 5주년을 맞아...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 인터뷰
- 04 1. 에볼라를 넘어서  
전염병에 대응하는 일
- 06 2. 해상에서 생명을 구하는 일  
지중해 수색·구조 활동
- 08 3. #NotATarget  
시리아 전쟁 중 민간인 및 의료 활동 공격
- 10 4. 우리의 관심이 절실한 사람들  
인도적 위기 속에 영양실조를 치료하는 일
- 12 5. 재해 현장에 구호 지원하기  
자연재해에 올바르게 대처하기
- 14 후원 참여 및 소식



### 독자 피드백 이벤트

이번 소식지는 지난 5년여 동안 국경없는의사회가 이어온 활동과 그 가치에 대해 한국 독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 1 국경없는의사회 소식지에서 눈여겨보는 이야기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2 국경없는의사회 소식지를 어디서 어떻게 읽으시나요?
- 3 앞으로 국경없는의사회 소식지에 어떤 이야기들이 실렸으면 하시나요?  
또한 어떤 방식으로 소식지를 읽고 싶으신가요? (출판물, 웹 브라우저, 모바일 앱 등)

국경없는의사회 소식을 더욱 잘 전해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아래 방법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전할 수 있습니다.

- Facebook facebook.com/msfkorea에서 “좋아요”를 누르고 가을호 소식지 발행 안내 게시물에 댓글로 의견 남기기
- Instagram/Twitter @MSFKorea 팔로우하고, 해시태그 #MSFNewsmagazine를 사용하여 직접 의견 남기기

가장 좋은 의견 3개를 선정해 채택되신 분들께 새로 제작한 국경없는의사회 스마트폰 휴대용 보조 배터리(5000mAh)를 보내 드립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전해 주세요!



### COVER STORY

2014년 11월, 라이베리아 몬로비아에 위치한 국경없는의사회 엘와3 에볼라 치료센터에서 병을 극복하고 완치한 생존자가 ‘생존자들의 벽’에 손자국을 남기고 있다. ©Malin Lager / MSF

# 한국 사무소 개소 5주년을 맞아...

올해로 다섯 번째 생일을 맞은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소에서 홍보국을 총괄하고 있는 윤주용 국장이 티에리 코펜스 사무총장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 인터뷰



감사합니다.  
티에리 코펜스

### Q1

#### 국경없는의사회가 한국에 사무소를 연 것은 언제인가요?

몇 년 전, 국경없는의사회 국제 네트워크에서는 한국에 사무소를 열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이에 국경없는의사회 일본 사무소와 스위스 사무소의 지원 속에 2012년도에 서울에 사무소를 열었으며, 올해로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 Q2

####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소의 주된 목표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주된 목표는 현장 인력 채용, 모금, 커뮤니케이션 등의 활동을 통해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국경없는의사회의 인도적 의료 활동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신적인 의료·비의료 직원을 채용하여 이 활동가들이 우리의 현장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숙련된 전문인들이 점점 더 인도주의 활동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재정적인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민간 기금을 모으는 일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립성을 지켜야만 더욱 유연하게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 세계 보건 이슈와 인도적 위기 상황에 대해 한국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일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 Q3

#### 그동안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이 달성한 일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지난 5년간 한국에서 모은 기금은 남수단·나이지리아·콩고민주공화국·이라크·미얀마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는 국경없는의사회 의료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직접적으로 쓰였습니다. 또한, 헌신적인 구호 활동가들을 파견해 아프리카·중동·아시아 등지에서 매해 평균 25회의 현장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독자적인 의료적 관점을 제시하면서 한국 언론과 대중에게 주요 인도적 위기 상황에 대해 알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적합한 자질을 갖춘 헌신적인 직원들과 함께 튼튼한 서울 사무소를 이뤘습니다.

### Q4

#### 앞으로 국경없는의사회가 한국에서 이행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일은 더 많은 한국인 구호 활동가들을 현장으로 파견하는 일입니다. 더욱 다양한 프로필을 갖춘 활동가, 그리고 현장에서 더 높은 직책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활동가들을 파견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우선 과제는 국경없는의사회의 인지도를 높이고, 세계 보건 위기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대중과 나누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환자들이 보다 양질의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의 잠재적 파트너들과 연계 활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원자분들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지원을 하고 있는지 꾸준히 알려 드리며, 국경없는의사회를 지지하는 분들이 더욱 많아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Q5

####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의 후원자 및 지지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우선, 국경없는의사회를 후원·지지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의료 활동은 여러분의 지원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날마다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투명하게 사용하고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최대한 우리 환자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지자 여러분, 국경없는의사회의 인도주의 활동이 지니는 가치를 가족·친구·동료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공감과 연대가 부족한 세계 속에 사는 지금, 모든 일에서 인류애를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1. 에볼라를 넘어서

## 전염병에 대응하는 일

‘에볼라’, 전 세계 누구든 이 단어를 들으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에볼라의 위험에 노출되는 사람들은 에볼라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대규모 에볼라 확산은 드물게 일어나는 반면, 에볼라보다 더 흔한 질병들은 더 주기적으로 발생합니다.



2015년 1월 라이베리아 몬로비아에 위치한 국경없는의사회 엘와3 에볼라 치료센터에서 500번째 생존자 존 몰바(John Mulbah, 33세)는 “집에 가야만 해요. 살아난 것이 자랑스러워요.” 라고 말했다.

©Caitlin Ryan / MSF

2014년~2015년에도 국경없는의사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에볼라 창궐에 대응했습니다. 에볼라는 자주 나타나지는 않지만 매우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다.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 가장 피해가 컸던 서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28,000여 명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11,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크나큰 두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국경없는의사회는 이 전례 없는 에볼라 창궐에 앞장서서 대응하고, 극도로 위험하고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최대한 많은 생명을 살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번 대응 활동은 국경없는의사회 역사상 가장 규모가 컸던 의료 활동 중 하나였습니다.



**현장 이야기**  
시에라리온 에볼라  
현장 경험 | 2015년



**영상:** 라이베리아  
국경없는의사회  
엘와3 치료 센터  
[youtu.be/THBe1ZnaYw0](https://youtu.be/THBe1ZnaYw0)

의료인으로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동료들과 함께 살리려고 노력했던 환자가 죽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절반 이상의 환자는 회복되었기에 그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에볼라 긴급 대응 활동 중에 환자로 만난 5세 아이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많이 아팠지만 잘 견뎌냈고 많은 의료 스태프들이 아이가 살아난 것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환자들은 보통 치료센터에서 20일~30일 정도 머무는데, 보호장구(PPE)를 착용했을 때만 환자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료진은 저위험·고위험 구역에 있는 환자들을 밖에서 바라보고 이야기를 나

눌 수 있었습니다. 20일 이상을 그렇게 함께하다 보면 정이 많이 들고 환자와의 유대가 강해집니다. 현장에 가기 전에 환자와 의사 사이의 관계가 제한될까 걱정했었는데 괜한 우려였습니다. 오히려 환자들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김나연 활동가**  
국경없는의사회 의사



## 국경없는의사회는 어떤 방법으로 변화를 이루어 냈을까요?

에볼라 확산 초기 5개월 동안 국경없는의사회는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 가장 피해가 컸던 나라에서 병원에 입원한 전체 환자의 85% 이상을 돌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경없는의사회는 이 3개국에 에볼라 치료센터 15곳을 세우고, 곳곳에 신속 대응팀을 급파하며, 트레이닝 센터와 생존자 진료소도 운영했습니다.

에볼라 확산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에 현장에서는 근 4,000명에 달하는 현지인 직원과 325여 명의 국제 구호 활동가들이 국경없는의사회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에볼라 확산 말기 즈음까지 국경없는의사회가 치료한 환자는 1만여 명이었는데 이 중 5,000여 명은 에볼라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환자들이었습니다. 이 환자들 중 근 2,500명이 병을 극복하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결국, 국경없는의사회는 이번 에볼라 확산으로 생겨난 전체 에볼라 확진 환자 중 35%를 치료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한 단계가 감당하기에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이에 국경없는의사회는 에볼라 확산 초기에서부터 바이러스가 최고조로 퍼져나가는 시기까지 계속해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국제 언론 및 유엔 고위급 회의에서 공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세계는 느장을 부렸습니다. 대규모 국제적 지원이 현장에 도달한 것은 2014년 말이었는데, 그때는 이미 감염 환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서아프리카 에볼라 확산을 통해, 장래의 감염성 질병 창궐에 세계가 적절히 대비하려면 아직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함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에볼라가 많은 주목을 받는 반면, 홍역·콜레라·말라리아·뇌수막염 등 에볼라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데도 그만큼 주목을 받지 못하는 병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질병들도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

할 수 있기에, 국경없는의사회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든 그렇지 않든 오랫동안 그러한 질병 창궐에 대해 왔습니다.

현재 예멘에서는 막대한 규모의 콜레라가 번지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예멘에서는 2016년 후반부터 2017년 중반까지 약 40만 명이 콜레라에 감염되었고 약 2,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에 국경없는의사회는 콜레라 치료센터를 세우고,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을 공급하며, 물통과 정수 알약을 배급하는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또한 남수단·나이지리아·콩고민주공화국에서 일어난 콜레라 창궐에도 대응하고, 탄자니아에 머물고 있는 부룬디 난민들을 돕고자 콜레라 대응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홍역·뇌수막염 등 백신이 존재하는 질병들의 경우, 예방접종 캠페인 전염병 대응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난해, 국경없는의사회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홍역 창궐에 대응해 100만 명이 넘는 아동들에게 백신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한국과 같이 비교적 개발된 국가에서는 홍역과 뇌수막염이 대부분 사라졌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과 같은 저소득 국가에서는 이러한 병들이 여전히 공중보건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2016년, 국경없는의사회는 질병 창궐에 대응해 220만여 명에게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김나연 활동가 제공

©MSF



### 잊혀진 질병

#### 결핵 (TB) -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감염성 질환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결핵은 2015년 한 해 동안 180만 명의 목숨을 앗아 갔습니다. 이렇듯 결핵은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감염성 질환입니다.

중증 결핵은 과거의 질환이라고 치부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도 결핵은 계속 나타났고, 약제내성 형태의 결핵들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분명 결핵은 과거가 아닌 현재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제내성 결핵(DR-TB)은 일반적인 1차·2차 약제에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보다 최신 약약품이 있어야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지난 30여 년간 결핵에 맞서 싸워 왔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환경에서 결핵 치료를 제공합니다. 수단과 같은 만성 분쟁 지역에서도 치료를 제공하고 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처럼 안정된 환경에서도 취약한 환자들에게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6년, 국경없는의사회는 총 20,900명의 결핵 치료 시작을 지원했으며, 이들 중 2,700명은 약제내성 결핵 치료에 돌입했습니다.



2017년 2월, 키르기스스탄에서 국경없는의사회 의사가 결핵 환자의 X-ray 사진을 살펴보고 있다.

©Joosang Lee / MSF

## 2. 해상에서 생명을 구하는 일 지중해 수색·구조 활동

최근 몇 년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전쟁·박해·빈곤을 피해 유럽을 바라보며 지중해를 건너는 위태로운 여정에 올랐습니다. 해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2017년 상반기 동안 약 2,400명이 지중해에서 숨진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인도주의자인 우리는 안전한 곳을 찾아 이동하다가 바다에 빠져 숨지는 수천 명의 남성·여성·아동을 그저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가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돕기 시작한 것은 2002년 도였습니다. 당시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이탈리아 아 람페두사 섬에서 활동을 시작해, 그곳에 도착하는 사람들에게 의료를 지원했습니다. 현재 지중해를 건너려고 하는 난민과 이주민들이 겪고 있는 위기는 2015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2015년 5월부터 여러 구조선에 승선해 활동을 시작했고, 육지 경로에서도 안전을 찾아 유럽으로 오려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2015년 중반 이후, 국경없는의사회는 지중해 중부를 건너려는 70만여 명과 터키에서 그리스 군도로 넘어가려는 사람들 총 18,000명을 도왔습니다.

2016년, 구조선 3척에 올라 활동한 국경없는의사회 팀들은 지중해 중부에서 200여 차례의 구조 활동을 통해 30,600명의 난민, 망명 신청자, 이주민들을 도왔습니다.

그리스·이탈리아·프랑스·세르비아·스웨덴·벨기에·독일 등지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수용 센터, 비공식 정착촌, 경유 캠프에서 의료, 심리



©Andrew McConnell / Panos

리비아 해안에서 국경없는의사회 구조선 프루덴스 호가 나무 보트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구조하고 있다. 2017년 6월 8~9일, 프루덴스 호는 지중해에서 아동 52명을 포함해 총 726명을 구조했다.

적 지지, 거처, 물, 위생시설, 필수 구호품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또한 그리스와 아테네에서 고문을 당했던 사람들의 재활을 위해 특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안전과 보호를 찾아 유럽으로 가고자 바다 횡단을 시도했습니다.

2016년 6월, 국경없는의사회는 더 이상 유럽연합(EU)과 그 회원국들의 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해로운 억제 정책을 내놓는 한편, 사람들을 밀어내고 유럽 땅에서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려는 시도를 강화하는 EU와 회원국들의 뜻에 저항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전 세계 국경없는의사회 프로젝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코디네이터 후안 마티아스 길(Juan Matias Gil)이 나이지리아 출신 리처드(2세)를 구조선 안으로 데려가고 있다. 리처드는 점점 가라앉던 보트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구출되었다.



©Marta Soszynska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국경없는의사회 수색·구조 활동 인터랙티브 지도 보기  
searchandrescue.msf.org



영상: 유럽 이주 위기에 관해 꼭 알아야 할 10가지 사실  
youtube.be/M0cWPwC7yVc



### 이주민 이야기

“저는 그렇게 제 인생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리아 출신 알레아, 모하메드, 다나

디그니티 1호에서 도움을 받던 알레아는 몸을 덜덜 떨었습니다. 알레아는 감정을 잘 추스르기가 어려웠습니다. 방금 목격한 비극적인 상황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몇 분이 지나서야 알레아는 마음을 가다듬고 말을 꺼냈습니다. “배가 가라앉기 시작할 무렵 저는 배 안에 있었습니다.” 알레아와 함께 있던 남편 모하메드는 속옷만 입은 채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 알레아를 물에서 구해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인생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제 생명을 구한 거예요.” 하지만 뱃속에 있는 아기는 이 여정을 견뎌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임신 5개월의 알레아는 격정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몇 주간 태동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조선 안에 마련된 진료실에서 국경없는의사회 조산사는 알레아를 침대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진료실 한쪽 모퉁이에는 다나가 서 있었습니다. 다마스쿠스에서 온 다나(17세) 역시 그 배에 타고 있었고, 알레아 가족의 친구였습니다. 다나는 미소를 지으면서 조산사가 영어로 묻는 질문을 아랍어로 통역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알레아가 임신한 후 부부는 리비아를 떠나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립 병원에 갈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의료 지원을 받기도 어려웠고, 공립 병원들은 리비아 사람만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부부는 다나를 만났습니다. 다나 역시 전쟁을 피해 고향 다마스쿠스를 떠나 온 사람이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들



©Marta Soszynska

국경없는의사회 조산사는 임신 5개월의 시리아 출신 알레아를 진찰하면서 태아가 충격을 잘 견뎌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 죽고 피 흘리는 것을 보는 데 질렸거든요.” 다나의 말이었습니다. 다나와 다나의 아버지(65세)는 멀고도 위험한 여정을 거쳐 터키까지 왔지만 그리스까지 이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도 먼 길을 걸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터키에서 리비아로 가는 비행기를 탔고, 리비아에서 배에 오를 것입니다. 다나는 여기에서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그 다음 벌어질 일을 떠올리며 말문이 막힌 것입니다.

조용했던 방에서 갑자기 작고 부드러운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는데, 이 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 맞혀진 위기

아프리카 분쟁 - 뉴스에 등장하지 않은 채  
수년간 이어진 분쟁

‘코끼리 싸움에 짓밟히는 건 풀이다.’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을 떠나 우간다로도 망쳐 온 한 환자는 무력 분쟁이 민간인들에게 끼친 영향을 설명하며 이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했습니다.

별써 수년째 민주콩고, 남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중앙공) 등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분쟁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관심은 낮지만 현지의 민간인들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쟁들로 인해 수백만 명이 국경을 넘거나 국내에서 더 안전한 곳을 찾아 떠나야 했습니다.



©MSF

2014년 5월, 남수단 주부에 위치한 국내 실향민 캠프에서 국경없는의사회 간호사 이영수 활동가가 아기를 살펴보고 있다.

민주콩고에서는 각지에서 무장 단체들과 콩고 군, 지역 공동체 사이의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 국경없는의사회는 민주콩고 활동 중 역대 최대 규모의 활동을 실시해 환자 1,960,100명을 치료했고 30여 회의 응급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폭력과 난민 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홍역·콜레라·황열·장티푸스 등의 질병 창궐에 대응하면서 실시한 의료 활동입니다.

남수단에서는 3년 넘게 무력 분쟁이 이어지는 동안 민간인들을 겨냥한 극도의 폭력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수백만 명이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나라는 우간다입니다. 우간다는 남수단 출신 난민 약 100만 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인 직원이 가장 많이 활동한 국가도 바로 남수단입니다.



● 국경없는의사회 활동 지역(2016년 기준)

### 3. #NotATarget

## 시리아 전쟁 중 민간인 및 의료 활동 공격



© Jamal Balli / MSF

2017년 1월, 시리아 북부 코바니에서 국경없는의사회 직원이 무력 분쟁 속에 무너진 건물 옆을 걸어가고 있다.

시리아 전쟁은 우리 시대 가장 심각한 인도주의 위기 중 하나로 손꼽습니다. 6년여 기간 동안 잔혹한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간인을 겨냥한 극도의 폭력은 지금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민간인 지역들은 주기적으로 폭격을 맞고 지원이 끊겼습니다. 여전히 식량은 부족하고 의료 접근성은 매우 열악하며, 특히 포위 지역의 상황은 무척 심각합니다. 많은 병원들이 인력과 물자 부족에 시달렸고, 도망치거나 살해를 당한 의료진도 많습니다. 병원, 의사, 구급차에도 표적 공격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국경없는의사회는 인도적 의료 지원을 겨냥한 공격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과 행동을 촉구하고자 #NotATarget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시리아는 여전히 가장 많은 난민이 나오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동안 전체 인구의 절반이 훨씬 넘는 수가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2011년 이후로 500만여 명의 난민들이 안전한 곳을 찾아 레바논, 요르단, 터키, 이라크 등 다른 나라로 탈출했고, 그 밖의 600만여 명은 시리아 안에서 피난을 떠났습니다.

**66** 너무도 압도적인 전쟁 속에서, 과연 시리아인 각자에게 전쟁이 어떤 의미인지는 놓치기가 쉽습니다. 지난해 말, 시리아에서 일하면서 저는 폭발로 인한 부상과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적절한 거처가 없는 가족들도 보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산모들도 보았습니다. 시리아를 대하면서 전반적으로 인류애가 부족한 것은, 우리가 주로 수치를 가지고 시리아를 논하기 때문입니다. 현지의 국경없는의사회 프로젝트에서는 잔혹하고 무자비한 분쟁이 각 개인에게 끼친 피해를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99**

- 국경없는의사회 국제 회장 조앤 리우(Joanne Liu) 박사 -

국경없는의사회가 시리아에 직접 머무르며 활동하는 데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계속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정부에서 국경없는의사회 활동을 승인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치안 불안으로 인해 반군

A graphic for the #NotATarget campaign. On the left is a QR code. To its right is a smaller image of a person in a white vest in a destroyed building, with the text '#NotATarget' overlaid in large white letters on a red background. Below the QR code is the text '#NotATarget 캠페인 notatarget.msf.org'. On the right side of the smaller image is the vertical text '©Andell LeBlanc'.



통제 지역에서는 제한적으로만 지원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국경없는의사회는 시리아 북부의 여러 반군 통제 지역에서 총 6곳의 의료 시설에서 직접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이를 통해 37만여 회의 진료를 제공하고, 5,300개의 구호 키트를 배급했으며, 2,000회의 출산을 보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경없는의사회는 현지 시리아 의료진 네트워크가 운영하는 의료 시설 80곳을 원격으로 지원했습니다. 이 곳들은 국경없는의사회가 직접 들어가 활동할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한편, 국경없는의사회는 레바논, 요르단, 터키, 이라크 등 여러 시리아 주변국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 의료 프로젝트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로 150만여 명의 시리아 난민이 피신한 레바논과 요르단은 해당 지역사회 주민에 비교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시리아 북부 코바니에 위치한 메쉬타 누르 병원 조제실 앞에서 한 환자가 국경없는의사회 직원의 도움을 받아 약을 받고 있다.

©Jamal Ball / MSF



**현장 이야기**

**레바논 베카 벨리**  
시리아 난민 대상 1차 의료 지원 | 2015년

난민캠프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약 15명이 함께 지내는데 화장실, 샤워기 등 기본적인 위생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시리아에서 남편을 잃고 이곳 난민캠프에서 5년 정도 지내며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하던 여성 환자가 기억납니다. 또한, 자신의 불안감을 어쩔 줄 몰라 소변을 조절하지 못하던 한 시리아 아이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국경없는의사회에서 상담 진료를 진행하는 정신건강센터에서 5번 정도 세션 치료를 받고 아이의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난민 신분으로 오래 지낸 환자를 돌보면서 안타까운 건 만성 질환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존심 때문에 치료를 거부하기도 하고,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일도 하지 못하는 어린이와 청년들은 큰 불안과 좌절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레바논은 응급 프로젝트는 아니기에 많은 지원 단체들이 활동을 접게 되는 경우도 보았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의료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정아 활동가**  
국경없는의사회 가정의학과 전문의

**현장 이야기**

**요르단 람사 병원 외과 수술 프로젝트**  
시리아 난민 지원 | 2015년

환자는 있는데 이쪽 병원으로 이송한다는 연락은 없는 상태가 사나흘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토요일 오후, 뭔가 변화가 생길 모양인지, 점심시간이 지나 6명이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도착할 것 같다는 소식이 들려 왔습니다. 우선 2명이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한 명은 머리가 손상되어 누군지 알아보기 힘들 만큼 얼굴이 피범벅이 된 상태였습니다. 다른 한 명은 오른쪽 다리에 출혈이 심했지만 검사를 해보니 피부와 근육이 조금 떨어져 나간 정도였고, 왼쪽 손목뼈는 부러졌으나 깁스만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 골절이었습니다. 응급조치를 마치고, 다음 4명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지만, 두어 시간이 지나도 환자들은 감각무소식이었습니다. 중상 환자 어른 둘과 아이 둘이었는데, 결국 이송 도중 구급차 안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재현 활동가**  
국경없는의사회 외과의



**잊혀진 위기**

**예멘 | 잊혀진 전쟁**

2015년 3월 이후, 아랍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예멘에서는 전면전이 계속해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처참한 상황에 부닥친 민간인들은 예멘에 발이 묶여 도망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시리아의 경우처럼 예멘에서도 전국의 의료 시설 수백 곳이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공습과 폭격의 영향뿐만 아니라 물자·기금·직원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국경없는의사회는 의료 지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늘어나는 전쟁 부상자들을 돕고자 예멘 활동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2016년, 국경없는의사회는 병원 12곳을 운영하고, 다른 의료 시설 18곳을 지원하면서 전쟁 부상 및 다른 손상을 입은 환자 33,000명에게 치료를 제공했습니다.



2015년 7월, 예멘 아덴에 위치한 국경없는의사회 응급 수술 병원에서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다.

©Guillaume Elnet

## 4. 우리의 관심이 절실한 사람들 인도적 위기 속에 영양실조를 치료하는 일

전면적인 기아 상황은 드물게 일어나지만, 국경없는의사회는 최근 여러 인도적 위기 속에서 취약한 사람들, 특히 아동들 사이에 영양실조가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신속히 대응했습니다.



2016년 1월, 에티오피아에서 한 아동이 간편 치료식 플럼피너트를 먹고 있다.

©MSF



2016년 8월, 차드 보코로에 있는 국경없는의사회 치료식 센터에서 한 아기의 몸무게를 재고 있다.

©Tiziana Cavili / MSF

국경없는의사회는 1980년대, 1990년대에 에티오피아·소말리아·수단 남부에서 일어난 기아를 포함해 여러 영양 위기에 오랫동안 대응해 왔습니다. 2005년에는 사람들이 간과하고 등한시했던 니제르 영양 위기에 대응해 '플럼피너트'라는 새로운 간편 치료식을 지역사회에 대규모로 배급함으로써 중증 영양실조 아동 63,000명을 치료했습니다. 간편 치료식을 대규모로 사용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인도주의 의료 활동에 있어서 이 같은 획기적인 일이 있었기에, 오늘날 영양실조 위기 대응에서 플럼피너트와 같은 간편 치료식들이 자주 사용됩니다.



2010년 국경없는의사회  
Starved for Attention  
캠페인  
starvedforattention.org

지난 2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인도적 위기들을 접한 국경없는의사회는 어린 아동, 때로는 곤경에 처한 성인들 사이에서도 영양실조가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치료했습니다. 나이지리아 북동부 보르노 주에서는 무장 단체 보코하람과 나이지리아 군 사이에 수년간 분쟁이 벌어져 수백만 명이 살던 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보르노의 주도 마이두구리와 인근 여러 마을에서 무수히 많은 아동들이 중증 영양실조에 걸린 것을 목격했습니다.



2016년 7월, 나이지리아 북동부 보르노 주에 위치한 국경없는의사회 응급 치료식 센터에서 한 아동이 치료식을 먹고 있다.

한 피난민 캠프에서는 식량을 배급했었는데, 이는 8,000명의 사람들이 넉 달 만에 받아 보는 첫 식량이었습니다. 2016년, 국경없는의사회는 영양실조 치료식 센터를 운영해 아동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영양실조를 치료하는 한편, 영양실조 아동을 둔 가족들과 피난민들에게 1천여 톤의 식량을 배급했습니다.

남수단에서는 무력 분쟁이 계속돼 2017년 7월 피보르 근처에서 식량 확보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전년보다 영양실조 아동 수가 3배로 늘어난 것을 목격하고 이에 대응해 응급 치료식 센터 3곳을 열었습니다.

이라크에서는 모술에서 군사 작전이 시작된 후로, 중증 영양실조 아동 450여 명이 국경없는의사회의 치료를 받았는데 대다수가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동들은 2017년 3월부터 7월까지 모술 남부 카야라 병원에 위치한 영양실조 치료식 센터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편 국경없는의사회는 2016년 1월 시리아 마다야 포위 도시로 향하는 구호 지원과 식량 지원이 끊겨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식량 배급처를 지원하는 한편, 식량과 의약품이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당국에 요청했습니다.



### 현장 이야기

#### 남수단에서 영양실조 치료하기 | 2016년

첫 현장 활동으로 총 6개월간 남수단 아웨이 어린이병원 입원 병동에서 일했습니다. 모래바람 때문에 비행기가 취소되어 이곳 병원에 오기까지 10일 정도가 걸렸는데 그동안 이곳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느꼈던 것은 사람들이 많이 굶주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빛으로 실낱 같은 생명줄을 붙잡고 병원을 찾아온 아이가 위장관 튜브로 우유를 공급받고 어느새 회복되어 영양 치료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뿌듯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 덕분에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여파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고 영양실조로 굶어 죽는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승경아 활동가

국경없는의사회 간호사



### 맞혀진 위기

#### 차드 호 위기

#### 보코하람의 영향을 받은 4개국

최근 몇 년간, 나이지리아·카메룬·차드·니제르가 인접해 있는 아프리카 중부의 차드 호 주변 지역은 무장 단체 보코하람이 저지른 공격으로 폭력사태를 겪어 왔습니다. 이들은 자살 폭격을 벌이고 마을의 민간인들을 급습하고, 나이지리아 군과 전투를 일으켰습니다. 2009년 나이지리아 북동부에서 시작된 이 분쟁은 2014년에 주변 3개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위기는 이미 취약했던 지역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빈곤, 식량 부족, 반복되는 질병 창궐, 그리고 거의 없는 것이나 다른 없는 보건 체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특히 나이지리아 북동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위기 속에, 지난해 지역민들 사이에 중증 영양실조와 보건 위기가 나타났습니다. 계속된 위기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의료 지원, 식량, 식수, 거처, 보호, 교육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017년 2월, 나이지리아 북동부 보르노 주 중카 시에 도착한 피난민들

## 5. 재해 현장에 구호 지원하기

### 자연재해에 올바르게 대처하기



© Brian Sokol / Panos

2015년 5월 21일, 네팔에서 마일라 구룡(26세)이 헬리콥터 지원을 받아 고르카 지역의 자기 마을로 돌아가고 있다. 앞서 2015년 4월 25일에 네팔에서 강진이 발생한 후, 마일라는 급히 대피해 국경없는의사회 병원에서 부러진 다리를 치료 받았다.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국경없는의사회는 어떤 활동을 할까요? 혼란스러운 그 시기에 여러 단체들과 나라들이 현지로 몰려와 도움을 주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 혹은 등한시되고 있는 것을 살핌으로써 '부가 가치'를 더하고자 노력합니다.

자연재해는 단 몇 분 사이에 현지 지역 혹은 나라 전체의 보건 체계를 압도해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재해 직후에 의료 지원보다 개발과 재건축이 더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2004년 인도양 쓰나미 때가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당시 많은 단체들과 정부 기관들이 현지의 주된 필요 사



#### 현장 이야기

#### 필리핀 태풍 하이옌 대응 활동 | 2013년

저는 태풍으로 폐허가 된 병원에서 의약품을 비롯한 물품을 나르고 정리하고 현지에 있는 로지스티션을 도와 수술실을 마련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병원을 세팅하는 일을 했습니다. 당시 타클로반 시는 태풍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의료 체계가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치료나 진료를 거의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국경없는의사회 병원이 그러한 의료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태풍의 피해로 왼쪽 다리에 심한 외상을 입은 6세 여자 아이를 보고 유난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철제 지붕이 무너져 아이의 허벅지

안쪽 피부 1/3이 벗겨지고 심한 염증이 생겼는데 10일 이상을 방치한 상태였습니다. 아이가 어려서 드레싱 교체를 할 때 마취를 했고 이틀에 한 번 골로 상처를 치료한 결과, 제가 그 곳을 떠날 때쯤에는 아이 상태가 크게 나아져서 기뻐했습니다.



#### 이호민 활동가

국경없는의사회 마취과의



필리핀에서 태풍 피해로 심한 외상을 입은 아이를 치료 중인 이호민 활동가



이호민 활동가 제공

©MSF

항을 채울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국경없는의사회가 기여할 부분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경없는의사회는 쓰나미 피해 지역을 위해 사람들이 보내준 기부금을 기부자들에게 돌려주거나, 이를 일반적인 기금으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기부자들께서 기부금 용도 변경에 응해주셨고, 덕분에 국경없는의사회는 이 비지정 기금을 활용하여 다른 긴급상황들, 특히 2005년 니제르에서 벌어진 심각한 영양실조 위기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연재해 뒤에 부상자와 환자를 돌보면서 국경없는의사회가 더 큰 역할을 수행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국경없는의사회 팀들이 재해 발생 당시에 이미 현장에 있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2005년 파키스탄·인도에서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을 당시 카슈미르, 2007년 홍수가 휩쓸었던 멕시코, 2007년 사이클론의 막대한 피해를 본 방글라데시, 2008년 미얀마 등의 경우가 이와 같았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팀들은 그들의 전문성이 어디서 가장 도움이 될지 신속하게 파악하여 의료 지원 시설, 수술 지원처, 이동 진료소 등을 마련해 외진 지역에 갇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2010년 1월 아이티 대지진 이후, 당시로서는 국경없는의사회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긴급구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아이티 대지진으로 20만여 명이 숨졌고 100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이미 1991년부터 아이티에서 활동해 오던 상태였기 때문에 국경없는의사회의 시설들이 훼손되거나 무너진 이후에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고 그때부터 다른 여러 단체들이 아이티를 떠난 이후까지 아이티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또한 국경없는의사회는 2013년 태풍 하이옌이 필리핀을 강타한 이후 몇 시간 만에 긴급구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사마르·레이테·파나이 등 피해가 가장 컸던 섬 3곳에서 지역사회에 응급 지원을 실시했고, 그 밖에 외딴섬 몇몇 곳도 지원할 수 있었으며, 기본 의료 서비스, 거처, 재건 키트, 화장실, 깨끗한 물, 심리사회적 지지 등을 지원했습니다.



2013년 11월 17일, 필리핀의 한 외딴섬에서 태풍으로 파괴된 곳에 홀로 서 있는 아동. 태풍 하이옌이 필리핀을 강타한 지 9일째 되는 날이었다.

2015년 4월, 네팔에서 강력한 지진이 두 차례 발생해 여러 지역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국경없는의사회는 이미 현장에 있던 팀들을 동원해 긴급 의료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여러 지역에서 병원과 보건소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박타푸르 병원에 의약품과 의료 물품을 기증했고, 고르카 지역에서는 병상 20개 규모의 공기구입식 천막 병원을 세워 그 안에 수술실, 응급실, 산부인과 병동, 정신건강 프로그램 지원처 등을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네팔 보건부와 협력하는 가운데, 하루 평균 100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환자 대부분은 호흡기 감염, 설사, 지진으로 인한 부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2015년 5월 12일에는 산부인과 병동에서 첫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필리핀 태풍 하이옌 1년 후**  
국경없는의사회 대응 활동 및 보고서 전문 보기  
[msf.or.kr/article/2331](http://msf.or.kr/article/2331)



**잊혀진 질병**  
**비감염성 질환 (NCDs)**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노리는 침묵의 살인자

전 세계 사망의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비감염성 질환(Non-communicable Diseases, NCDs)입니다. 이 만성 질환들에는 당뇨, 고혈압, 천식, 심혈관 질환, 암 등이 포함됩니다. 분쟁 지역 혹은 자연재해 피해 지역에서는 보건 체계가 미약하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이 경우 장기적인 비감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약을 복용한다든지 필요한 약을 다시 받아온다든지 하는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 예로, 국경없는의사회는 요르단에서 당뇨·고혈압 등의 비감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시리아 난민들과 현지 요르단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치료를 제공합니다. 2016년 말, 이르비드 지역의 진료소 2곳에서는 총 3,700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추후 진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마르잔 베수이젠(Marjan Besuije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7년 5월, 이라크 모술 전투를 피해 떠나 온 국내 실향민들을 위해 마련된 캠프에서 환자 진료가 진행되고 있다.

“비감염성 질환 치료는 총상 치료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비감염성 질환들은 수년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질환들을 가리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 후원 참여

# 국경 없이 생명을 살리는 국경없는의사회의 후원병원이 되어주세요



### 국경없는의사회 후원병원 프로그램이란?

국경없는의사회가 보다 많은 분쟁 지역과 의료 사각지대에서 안정적인 의료 구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병원 명의로 후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병원들이 생명을 살리는 인도주의적 의료 구호 활동에 동참하고, '병원이 병원을 후원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 ◇ 일반적 병원의 의미

병자(病者)를 진찰,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놓은 곳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고>

### ◇ 국경없는의사회 병원의 의미

병자(病者)를 진찰,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갖추 수 있는 자동차, 초원, 텐트, 건물 등

병든 몸과 아픈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 우리는 병원이 필요합니다. 폭격이 빚발치는 전쟁 지대와 열악한 의료 사각지대에서 치료가 절실히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보다 많은 국경없는의사회 병원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자동차로 더 많은 마을을 찾아다니며 진료하는 이동 병원, 피약별이 내리쬐는 초원 한가운데 천막 하나로 운영하는 천막 진료소, 때에 따라 수술실, 병실 등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텐트 병원에서는 날마다 생명이 태어나고 희망이 자라납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한걸음에 달려갈 수 있도록  
한국 병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후원을 기다립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후원병원 홈페이지 [msf.or.kr/hospital](http://msf.or.kr/hospital)

문의 | 02-3703-3554, [hospital@seoul.msf.org](mailto:hospital@seoul.msf.org)

아래의 방법으로 후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 홈페이지에서 후원 신청
- ◇ 후원센터 통해 후원 신청(02-3703-3555)



국경없는의사회, 이렇게 알려주세요.

- ◇ 병원 내 임직원들과 환자들에게 정기후원 안내
- ◇ 후원병원 홍보 영상 상영
- ◇ 눈에 띄는 곳에 모금함 배치



아래의 방법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 ◇ 병원 이름으로 매월 정기후원하기
- ◇ 진료비의 일정 금액 또는 병원 임직원들 급여 일부를 기부하기
- ◇ 병원 내의 임직원과 환자들이 함께 모아 일시 기부하기

개인이 아닌 병원 명의로 후원을 해주시거나 의사, 간호사, 환자 등 병원에 있는 많은 분들이 후원금을 모아 병원 명의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후원병원이 되시면 감사 선물 꾸러미를 보내 드립니다.

- ◇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 ◇ 매월 30만원 이상 정기후원 또는 연300만원 이상 일시후원에 한해 국경없는의사회에서 제작한 헌판(문구: 국경없는의사회 후원병원)과 배지를 드립니다.
- ◇ 매월 10만원 이상 정기후원 또는 연100만원 이상 일시후원에 한해 국경없는의사회 홈페이지에 후원병원 이름을 게재드립니다.

후원 행사

# 국경없는영화제 2017 개최 FILMS WITHOUT BORDERS 2017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설립 5주년을 맞이하여 홍콩, 싱가포르, 대만 사무소에 이어 한국 사무소에서 인도주의 영화제인 <국경없는영화제 2017>를 개최합니다.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의 고통을 증언하고 세계 곳곳의 소외된 위기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일은 국경없는의사회의 핵심 활동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은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은 다큐멘터리 4편을 선보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7년 12월 1~3일

장소

아트하우스 모모 (이화여대 ECC 내 위치)

프로그램

국경없는의사회의 활동을 주제로 한 4편의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 및 필드 토크(구호 활동가 토크)

관람 신청 방법

추후 국경없는의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영화제 관련 문의

filmfest@seoul.msf.org



후원기업 소식

## 유니시티코리아, 분쟁 지역 산모를 위한 후원금 전달

유니시티코리아는 지난 7월 8일(토) 기금 전달식을 통해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에 분쟁지역 산모를 위한 후원금 5천만 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유니시티코리아는 국경없는의사회의 분쟁 지역 산모들을 돕는 '아이케어 (iCARE) 캠페인'에 동참하고자 지난 6월 8일부터 7월 7일까지 임직원과 회원들을 대상으로 '만 보 걷기 약속'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분쟁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산모와 아이들을 위해 아이케어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유니시티코리아 임직원과 회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업 후원 및 파트너십 문의 corporate@seoul.msf.org



후원 안내

홈페이지 donate.msf.or.kr

후원센터 02-3703-3555

후원계좌 신한 140-009-508856

문자기부 #1971 (3,000원)



국경없는의사회는 1971년 의사와 기자들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인도주의 지원에는 정부,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개입이 없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 국경없는의사회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의료 윤리와 공정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활동합니다. 이 원칙들은 인종, 종교,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양질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선도적인 인도주의 활동을 인정받아 199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소는 2012년 처음 문을 열어 구호 활동가 채용 및 파견, 모금, 인도주의 위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인도주의 활동에 마음을 모아 함께해 주시는 후원자 한 분 한 분, 거리 모금가, 한국인 구호 활동가 및 국경없는의사회를 지지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간직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